

현대 패션에 내재된 한·일 미적관점 비교연구(제1보)

- 한국의 미적 관점을 중심으로 -

채금석 · 김주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 전공 박사과정⁺*

A Comparative Study on Japan and Korea Aesthetic Point of View in the Modern Fashion

- Korea Aesthetic Point of View in the Modern Fashion -

Keum-Seok Chae · Ju-Hee Kim⁺*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Progr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6. 3. 28 접수; 2016. 5. 26 수정; 2016. 5. 31 채택)

Abstract

Sensitiv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relation to design in a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atmosphere. In the West, the concept of aesthetics has long been established but in the East, only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China the discussion had begun. In Korea where the first scholarly discussion on aesthetics had begun around 1929, more and more rigorou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emerge nowadays. Korean beauty consists of unplanned Beauty and unplanned planned Beauty. Japanese beauty consists of the beauty of half-articulation and the beauty of articulation. While both Korea and Japan base their sense of beauty on nature, Korea emphasizes the nature as it is and Japan values the artful decorative elements. In modern Korean fashion, the characteristic Korean aesthetics of unplanned Beauty appears in the various expressive techniques such as the movement with natural gathering,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like cotton, the harmonization of black and white, and simplified silhouette. Also, there are plays on balance and proportion using straight and curves lines and variegated colors and creative printing, intentional asymmetry, and destruction.

Key Words: Aesthetics(미학), Unplanned beauty(무작위의 미), Unplanned planned beauty(무작위적 작위의 미), Beauty of nature(자연미), Fashion(패션)

I.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논리적 사고나 이성보다는 감성적 반응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중시되고

있다. 제품의 품질과 기능뿐만 아니라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감성까지 고려하고, 차별화하여 받아들여려는 소비자의 선택이 늘고 있는 것이다. 감성(感性)이란 자극 또는 자극의 변화에 대하여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능력, 감수성, 오성(悟性)과 함께 지식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표상능력, 대상으로부터 출발되어 표상을 얻게 되는 수동적 능력이다.

감성은 전통철학의 측면에서는 주관적 사유로 여겨져 왔지만, 미학이라는 학문적 실행을 통해 현재는 타당성을 논하는 인식론적인 부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양은 일찍이 미학의 개념이 정립되어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동양은 17~18C 중국을 시작으로 19C 극동의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 20C 들어서야 미학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미에 관한 연구는 19C 말이나 20C 초에 유럽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어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아드레아스 에카르트가 1929년에 낸 ‘한국미술사’라는 책으로 학문으로서 미학, 예술학이 일본에 의해 한국에 수용된 것은 이제 70여년에 이른다(권영필, 1992). 한국미학이 시작된 시점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한국미론의 평가부분이 재평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학계에 팽배해 있다(권영필, 2005). 한국미론의 재평가 부분과 함께 건축(임석재, 2013), 음악(전인평, 2010), 미술(안휘준, 김원룡, 2003) 등에서 한국미학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복식미학의 범주가 아닌 한국미학의 관점에서 현대 패션에 대한 미적 요소의 접근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적 감성을 이해하여 차별화하는 방안이 기능보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일찍이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의 예술과 미의식이 논해졌으며, 복식에 있어서 중국만의 모티브와 색채로 세계화 속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대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일본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70년대 세계 패션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일본만의 감성으로 풀어내 세계 패션 시장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일본의 미의식은 예술·문화를 바탕으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꾸밈 미의식과 의도적 가공된 미를 표현한 반꾸밈 미의식으로 양분화하여 설명되는데(채금석, 2003), 한국이 미를 바라보는 관점, 즉 아름다운 미적 요소를 창조해 내는 과정이 일본과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할 때, 세계시장에서 보다 차별화된 한

국 패션만의 미적 요소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미학의 범주가 아닌 한국미학의 관점에서 한국미를 이해하고, 일본 미학과 비교·고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보에서 미학적 관점을 통해 한국미를 이해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2보에서 일본 미학과 일본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미의식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 관점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한국미학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학 관련논문 및 서적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적 요소는 미학의 활동이 활발해진 1995년부터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이 활성화되기 전인 2008년의 한국 디자이너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II. 미학적 관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美)란 과학적으로 쾌감을 동반한 하나의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미의 어원을 통해 아름다움의 근원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서양에서 ‘아름답다’는 그리스어인 칼론(kalon)과 라틴어인 풀크룸(pulchrum)으로 지칭되었다. 라틴어 명칭은 르네상스 시대에 벨룸(bellum)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고, 벨룸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의 bello, 프랑스어의 beau, 영어의 beautiful로 사용되었다. 칼론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감탄을 유발하며 환기시키는 모든 것’을 뜻하며, 비레나 조화 같은 합리적인 성질을 지시하는 말을 의미한다(W. Tataskiewicz, 1999).

중국에서 미는 ‘미대식감야(美大食甘也)’라 하여 ‘먹음직스러운 것’이나 ‘맛이 좋은 것’, ‘미여선동(美與善同)’이라 하여 ‘희생심과 같이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한 아름처럼 두 팔 가득 차는 풍부한 축감’에서 왔다는 국문학자들의 견해와, ‘앎, 즉 지(知)의 정상’과 관련이 있다는 미술사가 고유섭의 해석이 있으며,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련함과 연관시킨다(W. Tataskiewicz, 1999). 일본은 ‘사랑, 애착 등의 숙지감정’, ‘깨끗하다’라

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로 널리 쓰여 왔다. 이와 같이 미의 개념은 동·서는 물론 같은 동양의 한·중·일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공통적 견해는 물적 대상이 동반하는 쾌감의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동시에 '좋은 것(善)과 쓸모(有用)있는 것'이 아름다움과 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는 대상과 관련된 쾌감으로서 유용에 바탕을 두고, 지역, 시대, 생활 등에 따른 차별적 사상과 함께 유용과 질적 측면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갖게 된다. 한 지역의 미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차별성과 보편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의 종합적인 생활감정의 이해로부터 출발이 필요한 것이다.

미학(美學, Aethetik)이라는 용어는 1735년 독일 철학자 바움가르텐(Baumgarten)이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1750년 책이름으로 하여 출판하면서 존재에 대한 주장을 시작하였다. 바움가르텐이 학문의 명칭으로 삼은 *aesthetica*는 그리스어로 감각적인 지각을 의미하며,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감성학(感性學)이다(사사키겐이치, 2002). 따라서 미학이란 미적 가치 영역을 포괄하는 학문으로써 미가 감성적 및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정신적 가치라는 점에서 보면 '감성적 인식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미학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고와 논리를 세우기 시작하며 인간과 인생의 문제를 철학적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윤내한, 2004).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뒤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혹은 자연 속에서 복잡하고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인간과 현실 속에서 복잡한 심미관계를 연구하는 미학은 사회과학의 한 부분이 되어가며 발전해 가고 있다.

Ⅲ. 미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미

동양은 사전적 의미로 세계를 동서로 나누어 동반을 가리키는 말로 유럽에서 동양에 해당되는 오리엔트와 서아시아, 이집트 지역을 가리키며, 한국 및 중국, 일본 등을 극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채금석, 채혜숙, 2008).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양이란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를 일컬으며 동양사상이

란 유가, 도가, 불가를 중심으로 한다. 이에 이상우(2002)는 '동양적인 혹은 상세하게는 유가적, 불가적, 도가적인 미적 체험론을 구성하는 것이 동양미학이다'라고 하였으며, 김영호(1998)는 동양미학을 즐거움의 미학(유교), 대대(待對)의 미학(도교), 공(空)의 미학(불교)으로 보았다.

1. 한국미의 관점

한국미에서 미는 '아름다움'으로 최초의 미학자 고유섭은 '아름(안다)+답다(다음:격, 가치), 즉 지(知)의 정상을 의미하는 '지적가치'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안휘준은 아름다움을 '열매'로 파악하여 '아름답다'의 뜻이 실용적임을 주장했으며(민주식, 2002), 양주동은 '아름'의 고어 '아람'은 나(和)의 고훈(古訓)이며, '답'은 '같다(如)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름답다'의 본래 의미는 '여유사호(如有和好)'의 뜻으로 '제 마음과 같다', 혹은 '제 마음에 어울린다'의 뜻으로 정리하기도 한다(민주식, 2002).

한국의 미에 관한 연구는 19C말-20C초에 유럽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었으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에카르트(Eckardt)의 '한국미술사'가 있으며, 학문으로서 미학, 예술학이 일본에 의해 수용된 것은 이제 70여년에 이른다(권영필, 1991). 한국미학이 시작된 시점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한국미론의 평가부분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학계에 팽배해 있다(권영필, 2005). 이러한 한국미학의 접근방법과 정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식(2003)은 한국미학의 근원을 전통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서양처럼 분석적으로 행하기보다는 통합적인 방식을 취하기에 논리, 윤리와 구별되는 감성학을 구성하기보다는 삶의 문제, 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와 연결된 광범위한 분야라고 논하였다(민주식, 2003)

1) 국외에서 논하는 한국미의 관점

한국미학에서 한국미에 대하여 논한 미학자는 많지 않았으며,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정치상황 속에서 논하여진 한국미는 최근 재평가하고자 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며,

〈표 1〉 국외에서 논하는 한국미의 특성

저자	미적 특성	미론	미적유형
슈멜츠	- 한국미의 본질은 자연성 - 인물상의 표현적 특징은 해학적	자연미 해학미	1. 자연미
에른스트 치머만	- 한중일 삼국의 건축과 조형물의 미적 특징 비교 (좌우대칭, 비례, 곡선) -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지향성	자연미 균형미 곡선미	- 자연적 본질 - 자연 지향성 - 미의 자연적취향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 한국미를 고전적 관점에서 해석 - 미의 자연적 취향 - 평범한 단순성 - 균형감과 평온함	자연미 고전미 단순미 균형미	- 무작위의 미 - 조작없는 자연성 - 기술적인 완벽에 대한 무관심
야나기 무네요시	- 선(善)의 미와 추(醜)의 미 결합 - 선(線)의 미 - 백색의 미 - 천연과 인공의 조화 - 무작위의 미 - 파형의 미 - 비애의 미 - 소박함, 민예적	자연미 선의미 백색미 소박미 파형미 비애미 민예미	2. 소박미 - 평범한 단순성 - 백색의 미 - 소박함 3. 선형미 - 좌우대칭, 비례 - 균형감, 평온함
세키노 타다시	- 통일신라는 가장 세련된 고유의 취미 - 삼감청자는 선려한 형의 정제, 기교의 정숙 - 조선미술은 웅대하고 견실한 특성	정제미 세련미 형태미 견실미	- 선(線)의 미 - 내핍에서 발원한 선과 형태의 미 - 형의 정제
에블린 맥퀸	- 내핍에서 발원한 선, 형태의 미 - 세련과 조잡 두 극단의 힘과 마음을 끄는 정직성	선의미 형태미 소박미	4. 일탈미 - 파형의 미
디트리히 제켈	- 한국 불교미술의 우수성 - 조작 없는 자연성 - 기술적인 완벽에 대한 무관심 - 즉흥적이고도 시원한 활력이 한국 예술의 모미	자연미 무기교 즉흥미	5. 해학미 - 인물상의 해학적 표현 - 민예적

1900년대 국내외 비평가들의 논의를 살펴본다.

슈멜츠(Schmeltz)는 회화를 중심으로 한국미의 본질을 자연성으로 인식하고 인물상에 있어 표현적 특징을 해학미로 보았다(권영필, 2005). 치머만(Zimmermann)은 “한국미술”에서 한중일 동양 삼국의 건축과 조형물에 나타난 미적 특징을 언급하였는데(권영필, 2005), 한국미술 전반에 관해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지향성’을 지적하며 슈멜츠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에카르트는 “한국미술사”에서 벽화, 도자기, 탑 등의 한국미술을 고전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는데, ‘미의 자연적 취향’, ‘평범한 단순성’이란 언급을 통해 한국의 미를 자연감, 고전적 특징,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과 평온함, 소박성, 단순성으로 정리하였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한국예술의 아름다움과 특질을 고찰한 “조선과 그 예술”에서 민화, 자기, 석불예술을 통해 한국의 미가 ‘선(善)의 미와 추(醜)의 미의 결합’, ‘선(線)의 미’, ‘백색의 미’, ‘천연과 인공의 조화’ 그리고 ‘비애의 미’라고 주장하였으나, 후반에는 독창적 예술론인 민예론에 의해 ‘무작위의 미’, ‘소박미’, ‘파형의 미’, ‘민예미’라 논하여 달라진 한국미에 대한 태도를 보였다. 세키노 타다시는 한국미술과 한국미에 있어 ‘반도적 성격론’이나 ‘정체성론’ 등 식민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논하였으나, 신라시대의 예술에 대해 ‘가장 세련된 고유의 취미’, 고려시대 삼감청자는 ‘선려한 형의 정제, 기교의 정숙’, 조선 미술에 대해 ‘웅대하고 견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찬을 토로하였다(권영필, 2005).

에블린 맥퀸(Evelyn McCune)은 “한국의 미술”

에서 당시의 정치상황 속에서 ‘내핍에서 발원한 선과 형태의 미’, ‘세련과 조잡의 두 극단 모두에서 힘과 마음을 끄는 정직성’을 느끼며 한국미술을 ‘선과 형’으로 정리하였다. 디트리히 제켈(Dietrich Seckel)은 “불교미술”을 펴내면서 보살상, 자기, 석굴암 등 한국불교 미술의 우수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미술의 특징과 미적 감각을 구체적

으로 규명하였으며. 양식론과 비교론을 통해 한국미를 ‘조작 없는 자연성’, ‘기술적인 완벽에 대한 무관심’, ‘즉흥적이고도 시원한 활력이 한국예술의 묘미’라 논하였다.

미술사가이자 미학자인 고유섭(2005)은 탐, 자기 등의 조선미술을 통해 한국미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무작위의 작위’, ‘무기교의 기교’라 하

〈표 2〉 국내에서 논하는 한국미의 특성

저자	미적 특성	미론	미적유형
고유섭	- 무작위의 작위, 무기교의 기교 - 무계획성, 무관심성, 비균제성 - 구수한 큰 맛, 질박함, 민예적인 것	자연미 비균제미 질박미 민예미	1. 자연미 - 자연 속 순응 - 자연의애착, 수용 - 천진성, 대범성 - 자유분방성 - 투박, 무작위의 미 - 무계획성, 무관심성, 비균제성 - 곡선과 여백미의 자연주의 미론 - 무한한 내재미 2. 소박미 - 온아, 간소, 단순 - 질소, 소박, 검소, 담박, 질박 - 구수한 큰 맛 - 무심하고 어리송한 둥근 맛 - 백색의 아름다움 3. 일탈미 - 통일 벗어난 ‘멋’ - 단정함의 일탈 - 과격미 4. 해학미 - 풍아의 멋 - 밝고 명랑, 강건, 해학 - 신바람, 한과 해학 - 익살미
박종홍	- 무한한 내재미	내재미	
최순우	- 무심스럽고 어리송한 둥근 맛 - 풍아의 멋 - 온아와 간소미, 간박한 단순미, 질소미	소박미 온아미 풍아미	
이희승	- 통일을 깨고 벗어난 ‘멋’	일탈미	
이양하	- 단정함에 대한 일탈(Otiosity) - 무계획의 계획	자연미 일탈미	
김원룡	- 자연에 대한 애착 - 자연 현상의 순수한 수용	자연미	
안휘준	- 밝고 명랑하고 강건하고 풍류적이며 낭만적이고 해학적 - 답답하고 번거로운 것을 피해 천진성이나 대범성	풍류미 해학미 자연미 소박미	
권영필	- 정제, 세련미와 기층문화의 소박미가 부침, 합일하는 현상	정제미 세련미 소박미	
조요한	- 신바람과 질박미 - 한과 해학 - 비균제성과 자연순응성	질박미 해학미 비균제미 자연미	
최준식	- 자유분방성 - 곡선과 여백의 미의 자연주의 미론 - 소박미 개념 - 투박하고 거칠은 무작위의 미 - 무교에서의 익살미(해학미)와 과격미(일탈미)	자연미 소박미 해학미 일탈미	
민주식	- 수실거화의 정신 - 소박, 검소, 담박에 대한 기호 - 윤리적, 실천적 성격	소박미 검소미	
심영옥	- 자연 속에 순응하는 순리의 아름다움 - 백색과 곡선의 아름다움 - 해학적 아름다움 - 추상의 아름다움	자연미 백색미 곡선미 해학미 추상미	

었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무계획성’, ‘무관심성’, ‘비균제성’, ‘구수한 큰 맛’, ‘질박함’, ‘민예적인 것’ 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있는 그대로의 미를 존중하는 자연의 미와 유사하다. 박종홍은 한국미의 특징이 불교미술에서 보이는 ‘무한한 내재미’라 주장하였으며(조요한, 1999), 최순우는 도자, 비원, 풍속화 등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은 ‘무심스럽고 어리송한 둥근 맛’, ‘풍아(풍류와 문인적 아취)의 맛’, ‘온아와 간소미’, ‘간박한 단순미, 질소미’라고 표현하며, 간소미와 순박미에 집중하였다.

이희승은 한복의 긴 고름이나 버선코, 신코의 뽕족함, 저고리 회장과 싹귀의 날카로움, 그리고 주전자와 긴 컷대와 한국가옥의 추녀곡선을 들어 통일을 깨고 벗어난 ‘맛’이 한국미의 특색이라 하였다(조요한, 1999). 또한 맛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1950년대 말에 이양하는 한국인의 맛을 ‘오시어시티(Otiosity)’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흐트러짐이 없는 단정함에 대한 일탈을 표현하였다. 이는 고유섭이 말한 ‘무계획의 계획’과 같은 개념으로 여겨진다. 김원룡(1978)은 “한국미의 탐구”에서 불상, 벽화 등의 시대별 미술을 통해 한국적인 미의 일관된 정신은 “자연주의”로 보고 있다. 즉 자연에 대한 애착, 자연현상의 순수한 수용이 한국 민족의 특성이요, 한국 미술의 본질로 본 것이다. 안휘준은 ‘한국 회화사’에서 한국인의 미의식은 ‘밝고 명랑, 강건하고 풍류적이며 낭만적이고 해학적이다’고 하면서 ‘답답하고 번거로운 것을 피하고 시원한 공간적 여유를 추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천진성이나 대범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안휘준, 1984).

본격적으로 한국의 미에 대해 논하기 시작한 권영필(1992)은 한국미의 특질을 이원화된 구조로 보았으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상층문화¹⁾의 정제, 세련미와 실크로드를 따라 들어온 기층문화²⁾(숫자로변경)의 소박미가 상호 부침·합일하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조요한(1999)은 그의 저서 “한국미의 조명”에서 이원론적 구조로서 한

국미를 ‘신바람’과 ‘질박미’, 그리고 ‘한’과 ‘해학’으로 바라보고 한국예술의 성격을 ‘비균제성’과 ‘자연 순응성’으로 논하였다. 최준식(2000)은 민화와 같은 조선후기 예술을 관통하는 미의식으로 ‘자유분방성’을 주장하였으며, 자연주의 혹은 자연스러움의 개념을 언급하며 곡선의 미와 여백의 미도 이런 자연주의 미론에 포함시켰다. 또한 소박미 혹은 소박주의의 개념, 그리고 투박하고 거칠며 무작위적인 한국미의 독특성은 한국인의 영원한 종교인 무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삭미(해학미), 파격(일탈)미 개념도 자유분방하고 자연스러운 미의식의 하나로 보았다(최준식, 2000). 민주식(2003)은 신라(단정미), 고려(청신, 준일), 조선초(전아), 조선중기(충담), 조선후기(창경기굴, 방경고졸)이라는 한국의 전통미학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을 풍류의 미학으로서 ‘수실거화의 정신’, ‘소박, 검소, 담박에 대한 기호’, ‘윤리적, 실천적 성격’으로 정리하였다. 심영옥(2006)은 한국미적 특질로는 자연에 순응하는 순리의 아름다움, 백색의 아름다움, 곡선의 아름다움, 해학적 아름다움, 추상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러한 한국미의 배경에는 지리적·역사적 환경 등 여러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표 2).

국내외에서 논하는 한국미 특성의 공통점은 자연을 바탕으로 한 자연성과 꾸밈없는 일상의 단순성과 소박성이다. 국외에서 자연미와 소박미를 ‘자연, 단순, 백색’과 같이 표면으로만 보이는 미적 특성을 논하였다면, 국내에서는 ‘천진성, 대범성, 자유 분방성, 무기교, 비균제성, 내재미’ 등 자연미와 소박미 속의 내재된 의미를 보려고 한 것이 국내외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한국미의 주된 특성으로 자연과 같이 인위적 요소가 없는 자연미와 소박미는 야나기 무네요시, 최준식의 표현 같이 의도하지 않으며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무작위의 미의 범주라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자연을 닮은 선과 형의 아름다움을 한국미의 특성으로 보았으며, 국내에서는 한

1) 문화를 상층·중간층·하층의 3계층으로 나눌 경우, 상층문화는 소수의 정신적 지도자층에 의하여 형성된 문화를 의미한다.

2) 서민 내지 상민(常民)에 의하여 형성된 기저적·계속적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수용한 표층(表層)문화와 대응되는 것이며, 민족이나 지역의 문화가 내적인 발전·전파·접촉·피정복 등에 의하여 유지하고 있는 그 민족이나 지역의 전통적이며 고유한 문화를 의미한다.

국인의 흥과 같은 내면정서와 틀에서 벗어난 멋을 한국미의 특성으로 여긴다. 외국의 시각에서 한국의 도자기와 건축 등에서 느껴지는 특징은 자연을 닮은 선과 형태의 선형미로 이것은 자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의식하지만, 자연과 있는 그대로의 조화를 중시하며 자연을 통해 멋을 부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고유의 정서에서 베어 나오는 해학미와 일탈미를 논한 것으로 국외의 학자가 느끼기 힘든 한국인의 흥과 멋이 있다. 신바람, 익살, 한과 해학, 풍류 등은 한국인의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을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게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통일과 단정함에서 벗어난 멋은 국외와는 다른 시각이다. 그러나 선형미와 일탈미, 해학미는 자연을 바탕으로 하거나 정서를 은은히 베어 나오게 하는 점에서 고유섭의 ‘무작위의 작위, 무기교의 기교’처럼 있는 그대로에서 과하지 않은,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다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수묵화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그려진 먹선이 있지만, 여백을 빈공간 자체로 남겨둠으로서 꾸미지 않은 듯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무작위적 작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미, 소박미와 같이 의도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한국의 아름다움을 **무작위의 미**, 이에 상응하는 미로서 선형미, 일탈미, 해학미와 같이 있는 그대로에서 과하지 않은 다른 성질의 미적 의도를 표현한 것, 혹은 인위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기본성질이 변하지 않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무작위적 작위의 미**라 할 수 있다.

2. 한국미의 미적 특성

앞서 국내외에서 논한 한국미의 비교분석에 근

거하여 한국미를 무작위의 미와 무작위적 작위의 미로 분류하여 미적 요소를 살펴본다.

1) 무작위의 미

무작위란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것, 규칙성이 없는 것으로 한국미에 있어 무작위의 미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슈멜츠(Schmeltz)의 ‘한국미의 본질은 자연성’, 치머만(Zimmermann)의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지향성’처럼 기본적으로 자연성을 근원으로 한 미적특성이라 할 수 있다(권영필, 2005). 고유섭(2005)의 무관심성은 인위적이고 기교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적 환경이나 재료에 순응하는 미적 취향으로 이는 무기교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에 있어 화엄사 각황전 같이 목재의 본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나 민가의 추녀에서 굴곡진 목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그 예로 무관심성은 곧 자연에 순응하는 심리라 할 수 있다. 잭켈 또한 ‘기술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성의 발로’, ‘기교적이 아닌 짐’이라 하여 국내외 모두 무기교적인 한국특성을 언급한다. 비균제성은 사전적으로 고르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으로, 자연 그대로의 균일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결코 인위적이거나 의도되지 않은 특성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지만 그 미적 요소로 곧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을 자연미라 할 수 있으며, 무기교, 비균제성이 대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에카르트는 불상과 도자기를 중국과 비교하면서 ‘평상시의 단순성, 조용함, 자연스러운 조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잭켈은 한국 특유의 석탑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단순하고 간소하다고 하였다. 이때 단순성은 야나기 무네요시와 심영옥(2006)이 언급한 외적으로 단순하고 깨끗한 느낌의 백색의 미와 같이 단순함과 간결한 성

<표 3> 국내외에서 논하는 한국미의 특성 비교

특성		공통점	차이점
무작위의 미	자연미	- 무작위성	국외: 표면성 중심 국내: 내면성의 미 중심
	소박미	- 자연성 중심	
무작위적 작위의 미	선형미	- 작위성 - 의도적인 자연성 중심	국외: 선형성 중심 국내: 일탈성과 해학성 중심
	일탈미		
	해학미		



〈그림 1〉 백자달항아리

(출처: <http://tems.naver.com/entry.nhn?docId=1820746&cid=46657&categoryId=46657>)



〈그림 2〉 분황사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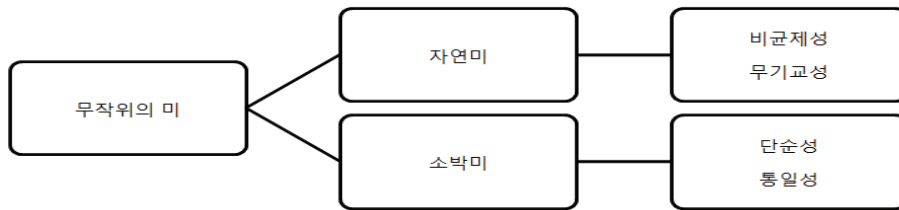
(출처: <http://tems.naver.com/imageDetail.nh?ocId=1104819&imageUrl=http%3A%2F%2Ffbsctthumb.phinf>)



〈그림 3〉 석굴암

(출처: <http://tems.naver.com/entry.nh?ocId=574694&cid=46648&categoryId=46648>)

〈표 4〉 한국미학의 무작위의 미



질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대상 전체에 대한 통일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위적이지 않은 통일성은 즉 순박, 질박, 담소 등과 함께 사상적 탐구가 아닌 심성적 자연에의 복귀, 자연과의 조화로 볼 수 있다. 이에 소박미는 사전적으로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는 의미로 꾸밈없는 과도한 장식을 피한 것을 말하며 외형적으로의 단순성과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과의 통일성이 미적 특성이라 사료된다.

2) 무작위적 작위의 미

작위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한국미학을 논하는데 있어 무작위의 미에 상응하는 미로 있는 그대로에서 과하지 않은 다른 성질의 미적 의도를 표현한 것, 혹은 인위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기본성질이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을 무작위적 작위라 할 수 있다. 고유섭(2005)의 ‘무기교의 기교’나 ‘무계획의 계획’은 서양과 같이 독자성, 자율성, 과학성을 획득하지 못했던 한국 전통미술의 제작태도에서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의도되었지만 완형을 갖지 않고도 음악적 율동성을 갖는 독특한 한국미라고 하였다. 이는 선(線)과도 통하는데 야나기 무네요시(1922/2006)는 석굴암, 첨성대,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고구려 벽화, 지붕의 처마, 버선등 모든 사물에 선의 미가 있다고 하였다. 에블린 맥퀸이 선과 형의 미는 ‘표현의 힘’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과 형으로 사용한 의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권영필, 2005). ‘세련과 조잡 두 극단의 힘과 마음을 끄는 정직성’이란 당시 내뿜한 한국의 의식을 대입한 것으로 크게는 주류와 비주류,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무작위적 작위의 미라 할 수 있다.



〈그림 4〉 금동미륵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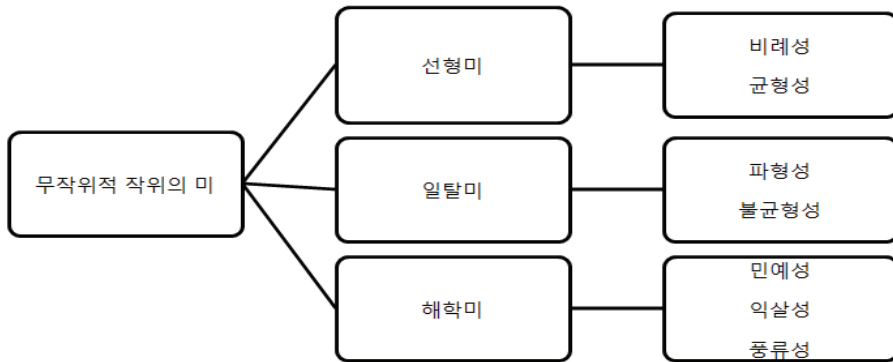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0016&cid=40942&categoryId=33375>)



〈그림 5〉 담배피는 호랑이

(출처: 민화Ⅱ, p.418)

〈표 5〉 한국미학의 무작위적 작위의 미



고유섭(2005)은 비례에 대해 ‘규율적인 데 미가 있음을 보고 또 규율적인 것에서 미가 상징됨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선과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규율, 비례미를 뜻한다. ‘형태가 형태로서 완형되지 못하고, 음악적이고 율동적, 선적인 점에, 우아로 통하는 섬약미가 있고 생동성이 있다’에서 자연성을 바탕으로 의도된 직선과 곡선의 선과 형에는 비례성과 균형성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야나기 무네요시(2006)는 그의 독창적인 민예론에서 미술과 차별되는 민예미는 무명(無名), 무심(無心)의 미이며, 조선 민화에 독특하고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서민생활 속에서 생겨난 특유한 풍토·풍물·정서·관습을 표현한 민예미이다. 예블린 맥퀸은 신라 토기의 장식문양에 추상성이 보이며, 삼국, 고려, 조선의 자기에는 한국인의 상상력과 농담끼 어린 성격이 표현되어 있

다고 하였다(권영필, 2005).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풍류와 같은 한국의 흥에 관한 내면의 미적 정서를 은은히 베어 나오게 하는 해학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순우(1955)는 조선의 도자기, 민화, 자수 등에서 익살은 흔히 느껴지는 즐거움으로 사물에 대해 대담한 생략과 왜곡, 과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좌우대칭에 대한 무신경, 이지러진 둥근 맛으로 파형의 미, 일탈의 미로 이어질 수 있다. 파형의 미는 무작위 미의 비균제성에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미가 들어간 불균형성, 파형성이 다른 점이다. 그 대로에서 과하지 않은 다른 성질의 미적 의도를 표현한 것, 혹은 인위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기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무작위적 작위의 미라 하였으나 작위의 미와 같이 자연성 바탕으로 한 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의 특성

1900년대 초는 동양미학이 학문으로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미학이라는 학문적 관심을 통해 세계적으로 동양 복식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인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활발한 문화적인 움직임과 함께 패션에 나타난 미의 의미와 정신세계를 탐구하게 하였다. 패션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의식과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것으로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의 특성을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채금석, 2002).

1. 무작위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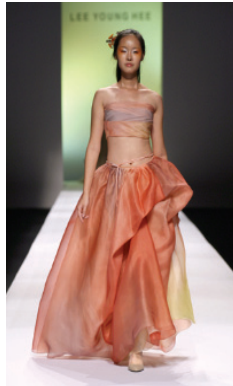
1) 자연미

무작위의 미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성을 자연미라 하며 무균제성과 무기교성을 미적 특성으로 한다. 이혜현(2007)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카오스적 현상의 나비 효과적 속성은 도가사상의 무위(無爲)와 상통하며 프랙탈 기하학적 속성은 도가사상의 변화와 순환의 의미와 통한다고 판단하였다. 나비 효과와 무위에 따른 조형 특성으로 비예측성, 불안정성을 도출하였고, 프랙탈 기하학과 변화, 순환의 원리에 따른 조형 특성으로 자기유사성, 공간성, 비평형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의 자연미와 연관된다고 사료된다.

한국 전통복식인 치마는 한 장의 천을 몸에 둘러 끈으로 고정하는 착장방식으로 일정한 형태



〈그림 6〉 이영희 2007 S/S
(출처: <http://www.leeyounghee.co.kr>)



〈그림 7〉 이영희 2007 S/S
(출처: <http://www.fi.co.kr/Collection>)



〈그림 8〉 최연옥 2004 S/S
(출처: <http://www.choiyenok.co.kr/show>)



〈그림 9〉 이영희 2007 S/S
(출처: <http://elleonline.tistory.com>)



〈그림 10〉 진태옥 2007 S/S
(출처: <http://www.fi.co.kr>)



〈그림 11〉 서승희 2007 S/S
(출처: <http://www.fi.co.kr/Collection>)

를 갖지 않으며 인체의 굴곡에 상관없이 불규칙한 주름이나 드레이프 등을 통해 인체와 의복, 의복과 의복 사이의 공간적 여유가 형성되며,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외관을 보여준다(김진민, 2005). 자연을 인간의 일부로 보고 외부 자연과 인간의 소통, 여유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김은정, 2004), 이러한 특성에 대해 채금석·고정민(1997)는 한국적 문화개념인 싸는(包) 문화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그림 6>은 전통적인 한복 치마의 형태를 이용하여 몸에 붙지 않은 여유로움과 자연스러운 흘러내림을 볼 수 있다. 주름과 허리선 여밈으로 공간성과 입체감을 더하며, 한국적인 소재와 소재에 가까운 색으로 한국적인 자연미와 소박미를 살려주는 작품이다. 다른 작품 <그림 7>은 정형화 되지 않은 비대칭적인 형태미의 사용으로 실루엣에 있어 비균제성의 자연미를 볼 수 있으며, 광택이 느껴지는 전통적 소재가 실루엣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8>은 자연적인 소재감과 가변적인 구조를 통한 비균제성을 볼 수 있다. 한국적 자연미는 몸에 붙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여유로운 실루엣, 자연스러운 흘러내림, 착장방법에 따른 가변성, 면과 실크 등 전통소재의 사용이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다.

2) 소박미

소박미란 꾸밈이나 거짓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성, 순수성, 통일성을 표현한다. 패션에서 보이는 소박미로는 색상과 형태의 단순화, 장식선 배제, 여백의 미 등이 있다.

색상에 있어 한국인은 백색 선호 사상에 따라 전통적으로 염색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백색을 선호하였다. 고서에 백의를 금제하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백성들이 백의를 즐겨 입었는데, 이러한 한민족의 백의에 대한 애착은 인공의 멋을 가하지 않은 자연과의 친화를 의미하는 소박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윤보연, 2001). <그림 9>는 직선적 라인의 단순한 실루엣과 장식 없는 흑백조화의 모습으로 전통 복식의 자연미와 소박미를 살린 작품이며, <그림 10>은 실루엣과 장식선의 단순화, 검정색의 통일감으로

절제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1>은 단순한 살짝 비치는 소재로 깨끗하면서 은근한 아름다움이 잘 조화되어 있다. 장식선을 배제하여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한국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화이트 색상의 단순화로 소박미의 통일감을 보여주고 있다. 패션에 나타난 소박미의 특성으로는 색상과 형태의 단순화된 실루엣, 백색의 사용, 장식선의 배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작위적 작위의 미

1) 선형미

국외학자가 국내와 다르게 논하는 미적 특성으로 선과 형태에서 느껴지는 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線)의 미는 곡선미와 직선미를 포함하며, 좌우대칭, 비례, 형태를 통해 보이는 미적 특성이 있다.

의복에 사용되는 선은 기하학적인 선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평면상에서 의도되고 계획된 선이 입체적으로 디자인되고 볼륨 있는 인체에 착용됨으로써 원래 사용되었던 선들의 형태나 느낌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평면상의 직선이 곡선으로, 수직선이 사선으로 나타나게 되며, 수평선이 몸을 감싸는 곡선이 된다(이선재, 1998).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선을 지향하며 직선 형태에서 곡선으로의 변화를 추구하여 신체의 움직임과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곡선미, 울동미, 우아함, 여성스러움을 보이거나 직선과 곡선이 동시에 보여 조화를 이루게 된다. 또한 한국적 패션의 경우 전체적인 윤곽과 내부구성선 등이 곡선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징이 일본 패션디자인의 평면적이면서도 직선적인 성향과도 비견된다. <그림 12>는 한복치마의 이미지로 직선 재단의 치마가 풍성한 주름으로 실루엣에 있어 곡선미, 여성미와 울동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끈으로 묶는 구성과 여유로운 풍성함으로 자연미도 보이며, 곡선과 직선을 사용한 형태미와 비례, 균형의 미적 특성이 있다. <그림 13>는 역시 단순하지만 직선과 곡선을 통한 비례와 균형감이 있는 작품이다. 평면재단이지만, 착장 후 입체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선형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이영희 2005 S/S
(출처: <http://www.leeyounghee.co.kr>)



〈그림 13〉 송자인 2007 S/S
(출처: <http://www.fashionbiz.co.kr>)



〈그림 14〉 최연옥 2004 S/S
(출처: <http://www.choiyenok.co.kr/show>)



〈그림 15〉 최연옥 2004 F/W
(출처: <http://www.choiyenok.co.kr/show>)



〈그림 16〉 이상봉 2008 F/W
(출처: <http://elleonline.tistory.com>)



〈그림 17〉 2008 '우리' 가운
(출처: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2012), p.426.)

2) 일탈미

무작위적 작위의 미로 본래의 모습에서 의도적인 변형을 주어 파형성과 불균형성을 미적 특성으로 한다. 〈그림 14〉는 구성의 의도적인 해체를 통해 한복 치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길이와 넓이의 패턴으로 실루엣에 있어 파형성과 표면적인 모습에서 불균형의 미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는 비대칭 길이의 자켓, 과장된 여밈 장식, 비대칭적인 디테일 등을 통해 의도적인 무작위적 작위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3) 해학미

해학미는 자유분방, 풍류, 낭만, 익살을 즐기는 국내에서 논하는 한국미의 특성으로 국외의

시각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차별화된 한국미라 논하였다. 복식에 표현되는 해학미로는 비대칭의 깃과 저고리 여밈, 옷고름,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인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방색, 색동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전진영, 2003), 형태적으로 왜곡하고 부풀리는 방식과 사치, 과시의 상징 등이 있다.

전통복식에서는 주로 은은하게 표현하였다면, 한국적 패션디자인에서는 부분적,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직접적인 형태의 장식적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한글 문양을 변용하거나, 한국 민화나 산수화를 사용하여 장식화, 단정함에서 벗어난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디자인 등이 있다. 〈그림 16〉은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칼라의 한글 모티브를 패치워크의 기법으로 장식화 하였으며, 비대칭적인 배열로 차

〈표 6〉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미학

대표적인 미		표현 기법	
무작위의 미	자연미	실루엣: 여유로운 실루엣, 자연스러운 흘러내림 착장법: 착장방법에 따른 가변성 소재: 면, 실크, 자연적 전통소재의 사용	
	소박미	실루엣: 색상과 형태의 단순화 색상: 백색, 검은색 사용 디테일: 장식선 배제, 여백의 미	
무작위적 작위의 미	선형미	실루엣: 직선과 곡선의 조화 착장법: 평면재단의 착장 후 입체변화	
	일탈미	디테일: 의도적인 변형과 해체	
	해학미	디테일: 한글 문양의 변용, 민화와 산수화의 사용,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런 디자인	

분한 블랙 색상 위에 과하지 않게 장식하였다. 〈그림 17〉은 2008년 전주한지를 사용하여 개발한 휴식복으로 색동과 한글을 포인트로 자연적인 한지 소재 위에 장식적인 미를 보인다.

V. 결론

현대예술이 지향하는 문화의 무경계-절충주의 속에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미적 보편성과 동시에 독자성과 감성은 필요하다. 이러한 독자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식미학의 측면이 아

닌 국내외에서 논하는 미학적 관점을 통해 한국적 미를 도출하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한국의 미적요소를 찾아내었다. 한국미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자연을 닮은 선과 형의 아름다움을 한국미의 특성으로 본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인의 흥과 같은 내면정서와 틀에서 벗어난 멋을 한국미의 특성으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의 시각은 외부의 표면적인 모습에 치중하였으나, 국내 미학은 내면적 정서를 부각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미적 특성을 종합하면 한국의 미의식을 무작위의 미와 무작위적 작위의 미로 정리할 수 있었다. 무작위의 미는 있는 그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의식으로 비균제성, 무기교성의 자연미와 단순성, 통일성의 요소가 보이는 소박미가 있었다. 무작위적 작위의 미는 무자연 속에서 과하지 않은 다른 성질의 미적 의도를 표현한 것, 혹은 인위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기본성질이 변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표현한 미의식으로 선과 형태를 통한 비례, 균형의 선형미, 내면의 익살과 풍류의 해학미, 의도적인 파형과 불균형성의 일탈미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미의식이 자연성을 바탕으로 한 선형미, 해학미, 일탈미를 통해 다양한 미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감성이자 한국미의 정수로 여겨진다.

한국 현대패션에서 나타나는 표현기법으로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통한 울동성, 면과 같은 자연소재,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 단순한 실루엣 등으로 무작위적 미의 요소를 보이고 있으며, 곡선과 직선을 통해 보여지는 균형과 비례미, 한글, 민화의 사용, 익살스런 디자인, 의도적인 비대칭, 해체 등의 요소를 통해 무작위적 미를 표현하고 있었다.

미의식에 대한 학문의 범주와 정당화에 대해 다양한 논리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각각 최선의 요소를 선택해서 종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 의 미의식에 대한 연구 영역은 앞으로 크고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이어 2보를 통해 꾸밈계와 반꾸밈계로 양분화되는 일본미의 특성을 고찰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와 일본미를 미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의 미의식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한국적 패션의 전개

를 통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시각과 우수성이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유섭. (2005). *구수한 큰맛*. 서울: 다할미디어.
- 김진민. (2005). *한일여성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호. (1998). *동양미학의 입장에서 바라 본 영화*.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필. (1991). 한국 전통 미술의 미학적 과제. *한국학 연구*, 제4집, 228-231.
- 권영필. (2005). *한국의미를 다시 읽는다*. 서울: 돌베개.
- 권영필. (1992). 한국 전통 미술의 미학적 과제. *한국학 연구*, 4, 228-231.
- 김은정.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주식. (2002). *아름다움 그 사고와 논리*. 서울: 영남대학교 출판부.
- 민주식. (2003). 한국 전통미학사상의 구조. *미학 예술학연구*, 17, 23-41.
- 사사키겐이치. (2002). *미학사전*(민주식 역). 서울: 동문선.
- 심영옥. (2006). *한국의 아름다움, 그 의미*. 서울: 진실한 사람들.
- 안휘준. (1984). *한국 미술의 미의식*.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안휘준, 김원룡. (2003). *한국 미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 야나기 무네요시. (2006). *조선과 그 예술*. 경기: 신구문화사.
- 윤내한. (2004). *산업디자인의 미적가치와 범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우. (2002). 철학/미학, 동양철학/동양미학 그 분류와 범주의 문제에 관한 고찰. *美學*, 1-33.
- 이선재. (1998).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이혜현.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카오스적 현상에 관한 연구: 동·서양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석재. (2013). *지혜롭고 행복한 집*. 서울: 인물과사상사.

- 전인평. (2010). *보고 듣는 우리 음악의 멋 열가지*.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진진영. (2003). *한일 전통 복식에 나타난 문양 비교:16~18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요한. (1999). 한국미의 탐구를 위한 서론. *미학·예술학 연구*, 9, 5-27.
- 조요한. (1999). *한국미의 조명*. 서울: 열화당.
- 채금석. (2002).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 채금석. (2003). *세계패션의 흐름*. 서울: 지구문화사.
- 채금석. (2004).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된 꾸밈미학. *한국복식학회*, 54(3), 113-127.
- 채금석, 고정민. (1997).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99.7), 654-666.
- 채금석, 채혜숙.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1), 60-72.
- 최순우. (1955). 우리나라 미술사 개설. *새벽*, 2(55.3), 74-77.
- 최준식. (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서울: 효형출판.
- W. Tataskiewicz. (1999). *A History of Six Idea An Essay in Aesthetics*(손효주 역). 경기: 미술문화. (원저 1980 출판)